

Airway complications after lung transplantation : a review of 12 anastomoses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학교실

정은규, 백효채, 황정주, 이두연

배경 : 1996년 처음으로 국내에 폐이식수술이 시도된 이래 폐이식수술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져 왔다. 폐이식수술후 합병증중 기관지 문합에 따른 합병증은 수술자들의 수술술식이 향상되면서 점차 감소되어져 왔으나 아직 주된 합병증중의 하나이다.

대상 및 방법 :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1996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시행한 13례의 폐이식수술중 수술 합병증으로 사망한 3례를 제외한 10례, 12 기관지문합을 대상으로 하였다. 단측 폐이식 8례, 양측 폐이식 2례이었으며 2례는 이식폐 기능부전으로 인한 재이식 환자이었다. 각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여 기관지문합후 합병증 및 그 위험인자를 분석하였다.

결과 : 총 12기관지문합중 기관지 합병증이 나타난 증례는 3례(3 문합)로 25%의 발생률을 보였다. 이중 2례에서는 육아조직의 증식으로 인하여 기관지의 20%이상의 협착이 발생하였으며, 1례(6.7%)에서는 50% 이상의 기관지 협착으로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육아조직의 절제를 시행하였다. 기관지 합병증이 발생한 3례의 기관삽관기간은 각각 26일, 8일, 21일로 전체 환자의 평균 기관삽관기간 보다 길었으며, 모두 1주이상의 기관삽관 및 기계환기치료를 받았다. 또한 이식폐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술전 기관절개술 및 장기간의 기계환기치료를 받고 폐재이식수술을 받은 환자에서는 2례 모두 기관지 합병증이 발생하였다.

결론 : 영동세브란스 병원에서 시행한 폐이식 수술중 총 3례(3문합)에서 기관지 문합부위 합병증이 발생하여 25%의 발생을 보였으나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확대술 및 육아조직 절제술이 필요한 례는 1례로 8.3%이었다. 기관지 문합부위의 합병증은 문합시 기관문합부위의 단축이나 장력을 감소시킬수 있는 수술기법, 이식장기의 적절한 보존, 그리고 술후 가능한 빠른 기계환기이탈 및 발관을 통하여 감소시킬수 있다. 기관지 육아조직의 증식으로 인하여 50%이상의 기관지협착이 발생시에는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기관지 확대술 및 육아조직 절제술을 이용하여 치료가 가능하였다.